

아동문학번역에 나타난 번역의 자율성 - 『크리스마스 캐럴』의 경우*

이 인 규
(국민대)

1. 번역(가)의 자율성

번역학이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한 것 중의 하나는 번역의 ‘독자성’ 내지 ‘자율성’(autonomy) 문제일 것이다. 이는 번역을, 단순히 원문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의존적 행위 내지는 종속적 텍스트 생산이 아니라, 번역가라는 독립된 주체의 사회 문화적 실천 행위이자 그 나름의 고유한 성격을 지니는 언어적 문화적 실체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을 때, 번역을 연구하는 번역학의 정체성과 존재 근거는 그만큼 공고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베누티(Lawrence Venuti)는 자신이 편집한 『번역학 독본』(*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서론에서 “번역의 상대적 자율성”(the relative autonomy of

* 이 논문은 2012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translation)을 번역연구의 핵심 범주로 규정하면서 이 자율성이란 곧 “번역을 외국어 원전 텍스트나 원래부터 모국어로 쓰인 텍스트와 구별되게 하는 텍스트상의 여러 특징, 작동방식, 그리고 전략들”(Venuti 2004: 5)이라고 정의한다.¹⁾ 다시 말하면 번역을 출발어 원문도 아니고 모국어 텍스트도 아닌 하나의 독자적 언어 실체로 만드는 특유의 글쓰기 방식과 전략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번역을 원전과도 다르고 도착어의 비번역 텍스트와도 다르게 하는, 그야말로 번역을 ‘번역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다. 번역의 자율성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생경한 번역투나 중간 언어적 성격을 띠는 어색한 번역문은 도착어 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자국화’시켜야 하는 부정적 극복 대상이 아니라, 가령 ‘제3의 코드’(조의연 5-6)처럼 번역을 번역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근거이자 본질적 요소로 권장할 적극적 긍정의 대상이 된다. 베누티가 자국화 전략에 부정적이면서 번역가의 존재를 드러내고 “혼질적 담화”(Venuti 1998: 27)를 양성하는 ‘이국화’ 전략을 ‘윤리적 번역’으로 주장하는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베누티처럼 번역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번역 행위의 결과물, 즉 번역 텍스트에서 찾는 것은 번역학의 학문적 영역을 물리적으로 확장하고 구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설정한 자기 지향적 논리라는 인상을 준다. 게다가 번역 텍스트의 번역다움을 자율성으로 내세울 때 그것은 결국 ‘의역’ 대 ‘직역’, ‘동화’ 대 ‘이화’, 또는 ‘자국화’와 ‘이국화’ 같은 번역전략의 가능한 선택에서 후자만을 선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번역 실천의 범위를 크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런 번역관은 도착어 독자를 상대로 하는 번역의 존재 조건을 생각할 때 번역의 현실적 효용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그리고 그 결과 번역학은 현실과 유리된 자기만족적 이론의 영역으로 흐르거나 폐쇄적인 관념적 독백의 장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 실제 번역현장에서 번역을 업으로 활동하는 전문번역가들이 대부분 ‘이국화’나 ‘들이밀기’식 번역의 실효성을 의문시하거나 드러내놓고 거부한다는 사실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희재 2009:

1) 베누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key category in any translation research and commentary is what I shall call the relative autonomy of translation, the textual features and operations or strategies that distinguish it from the foreign text and from texts initially written in the translating language.”(Venuti 2004: 5)

15-34, Landers 2001: 103).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한 방법은 번역을 ‘번역답게’ 만드는 번역의 자율성을 번역 텍스트의 물질적 특성에서 찾지 않고 번역 행위의 본질적 조건에서 찾는 것이다. 번역은 한 언어로 씌어진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언어적 전환 행위이다. 그 과정에서 번역가가 전환 행위의 주체로서 개입하는데, 이때 번역가의 개입은 출발어에 대응하는 도착어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번역 텍스트는 바로 이 출발어와 도착어의 거리 내지는 차이가 낳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가시적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데 번역가가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따라, 즉 번역가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물이 무한히 달라질 수 있다. 즉 번역은 원문에 구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무한히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 행위인 것이다.

번역 행위의 매순간 존재하는 이 역설적 상황, 즉 속박되어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 조건 지워져 있으나 열려 있는 이 불확정성과 유동성, 바로 이것이야말로 번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구성하는 번역의 존재론적 조건이자 내재적 본질이다. 번역의 이 자율성은 실제 번역 행위에서, 번역문투와 비번역문투, 직역과 의역, 자국화와 이국화, 가시성과 투명성 등을 넘나들며, 경우에 따라 이쪽이나 저쪽, 또는 이쪽과 저쪽 모두의(아니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성격을 띤 번역 텍스트 생산으로 물질화되어 실현된다. 원문은 하나이지만 번역문은 수없이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번역의 자율성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명제다.

가령 “I don’t like him”이라는 원문 텍스트가 있다고 하자. 이에 대한 번역은 출발어 원문의 구조를 그대로 간직한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를.”에서부터 “난 그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이 싫다.” “난 그 친구 싫어.” “나는 그런 놈은 안 좋아해.” “난 그놈이 싫다구.” 등등을 거쳐 “그 자식 밥맛이야.”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번역이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번역가에게 주어진 다양한, 하지만 원문에서 비롯된, 이 선택 가능성, 바로 이것이 번역을 원문과도 구분되고 또 비번역문의 글쓰기와 구분되게 만드는 고유한 본질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번역가는 원문에 대한 적절한 번역문으로 문맥과 번역의 기능에 따라 이국적인 원문투를 살린 “난 안 좋아해,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놈 영 밥맛이야.” 같은 토속적 표현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번역문은 원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착어 텍스트인 동시에, 그것이 원문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도착어로 자유롭게 사유되어 쓰인 비번역문과도 구분되는 독자적인 글쓰기 영역이라는 뜻이다.

요컨대 번역을 원문도 아니고 비번역문도 아닌 독자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번역문의 무한한 언어적 선택 가능성을 열어놓는 번역행위의 본질적 존재 조건이지, 번역행위의 결과로 나온 번역 텍스트의 언어 형태적 특성이나 체계가 아닌 것이다. 사실, 번역 텍스트의 언어적 형태는 번역가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무수한 ‘현상’의 하나일 뿐, 별도의 언어체계나 규범으로 정형화하여 독자적 실체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화되거나 정형화될 수 없는 번역 언어의 다양한 특성 가운데 일부인 ‘이질성’ 또는 ‘이국성’만을 임의적으로 한정하여 번역의 독자성을 담보하는 텍스트적 실체로 내세우는 것은 옹색한 자기논리구축이나 공허한 이론적 시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속박된 자유라는 번역의 상대적 자율성 위에 기초한 번역가의 선택과 결정 과정은 궁극적으로 번역 텍스트라는 하나의 유형화된 결과물을 생산해내는데, 번역의 구체적 단계에 들어가면 번역가는 자신이 하는 번역 행위의 기능과 목적에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목적이 요구하는 실행 규범의 영향 아래에서 번역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번역가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자율성은 번역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개념으로서의 자율성보다 훨씬 그 범위가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가령, 극장에 상영되기 위한 영화의 대사를 번역한다고 하면, 상업용 영화가 지니는 고유한 기능과 목적, 그리고 더빙이나 자막에 따른 말의 길이나 어투 등 같은 도착어 규범과 상황에 의해 번역가의 선택 가능성은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한편 번역가의 자율성은 번역문이라는 최종 생산물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개별 번역물에 대한 점검과 비평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검토와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 본질의 문제인 번역의 자율성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인 번역가의 자율성이 번역에 대한 논의에서 훨씬 큰 실제적 가치와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2. 문학번역과 아동문학번역

번역의 한 종류로서 문학작품 번역은 그 기능과 목적과 방법이 당연히 일반 실용문 번역과 다를 수밖에 없다. 문학이라는 특수한 언어사용 방식에 기반한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문 텍스트에 있는 개별 어휘나 문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텍스트 전체에 스며 있는 미학적인 특징과 주제까지 고려하여 번역을 해야 한다. 문학작품 번역의 이런 특수성은 번역가의 자율성을 한층 더 제한한다. 전달 형식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원문에 담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일반 실용문 번역과는 달리, “표현적 텍스트”(expressive text)(Reiss 1981: 171-2)를 상대하는 문학번역은 정보가 전달되는 형식과 느낌과 맥락까지 옮겨야 하므로 번역가의 선택과 운신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형식과 내용의 구분이 어려운 “유기적 구조물”(an organic structure)로서 “살아 있는 작품”(a living work)(Bassnett-McGuire 1980: 82)을 옮겨야 하는 문학번역의 경우 다른 영역의 번역보다 원문에 더 구속되는 뜻이다.²⁾ 따라서 문학번역은 도착어 지향적 번역전략보다는 원문 지향적 번역전략을 번역전략의 기본적 틀로 바탕에 깔고 시작하게 마련인데, 번역가의 자율성은 바로 이 제한된 틀 안에서 실행된다.

아동문학번역은 일단 문학번역의 한 세부적 갈래로서 기본적으로 문학번역의 특징을 상당부분 공유한다. 하지만 아동문학번역의 경우, 아동이라는 특수한 독자층에서 비롯되는 아동문학 자체의 고유한 기능과 목적성 때문에 번역의 전략과 번역가의 자율성이 크게 달라진다. 아동문학은 일반문학과 달리 발달 과정에 있는 어린 독자들에게 대한 교육적 가치를 그 중요한 기능으로 삼는다. 즉 아동문학은 재미와 감동이 따르는 문학 작품 독서 경험을 통해 성장기 아동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고 언어 능력을 신장하며 정서와 상상력을 풍부하게 길러주는 한편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비교적 뚜렷한 교육적 목표를 가진다(신지선 2005: 19-28, 성승은 2010: 18-20). 따라서

2) 이에 대해 정혜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형식 요소들이 의미 산출 작용에 긴밀히 개입하고 있는 문학 텍스트의 특성상 문학 번역은, 이러한 방식으로든 저러한 방식으로든 간에, 원텍스트의 언어적 형체까지 고려해줄 것을 요구받는다”(정혜용 2012: 54).

이러한 교육적 목적과 기능을 지닌 아동문학을 번역할 때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은 번역된 텍스트의 가독성이다. 왜냐하면 번역된 아동문학 텍스트가 그 교육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독자인 아동에게 잘 읽혀야 하기 때문이다(신지선 2005: 63-76).

번역 텍스트가 문학작품으로서 아동 독자층에게 일단 잘 읽히는, 즉 “수용 가능한 번역”(acceptable translation)(Toury 1995: 56)이 되어야 한다는 이 우선 사항은 곧 아동문학번역의 기본번역전략이 일반 문학번역과는 반대로, 출발어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도착어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문학번역가는 실제 번역작업을 수행할 때, 원문이 부과하는 구속과 속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입장에서, 아동독자층을 상대로 하는 도착어 언어 규범과 체계에 맞게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에 대한 조정은 물론이고 어휘와 문장구조의 변경, 비교육적인 내용의 삭제나 완화 같이 상당히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된다. 원문에 대한 이러한 개입은 때로는 과감한 손질과 조작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아동문학번역가에게는 일반문학번역에 비해 분명히 상당한 자율성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르페브르를 비롯한 번역학자들은 아동을 위한 번역은 어른을 위한 것과 다른 번역을 필요로 한다면서 (Lefevere 1992: 115, 성승은 2010: 18에서 재인용), 아동문학 번역에서는 “번안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Landers 2001: 206)거나 “자유 번역”(free translation)(Shavit, 신지선 2005: 13에서 재인용)을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아동문학번역이 갖는 이러한 자율적 성격은 실제 아동문학 번역작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자율성은 과연 어느 정도로 허용될 수 있는가? 아동용 『크리스마스 캐럴』 우리말 번역본에 대한 비교와 검토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3. 아동문학작품으로서 『크리스마스 캐럴』의 특이성

구체적 비교와 검토에 앞서 아동문학작품으로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지니는 특이한 성격을 간단히 짚어보자. 우리가 아동문학작품을 언급할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아동을 위해 창작되고 출판된, 따라서 당연히 아동이 독

자인 문학작품을 지칭한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캐럴』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저자인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가 1843년 크리스마스 무렵 이 작품을 창작하여 발표했을 때 이것은 아동용이 아니라 중산계층 이상으로 구성된 당대 영국의 일반 성인 독자들을 위한 작품이었다. 이후 이 작품이 크게 성공하여 고전적인 작품으로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때도 원래 아동용이 아닌 어른용 번역이었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이 작품은 1926년 『성탄의 환희』라는 제목으로 처음 번역된 이래 1980년대까지 자선사 편집부(1954), 권명수(1955), 이기석(1965), 조운제(1971), 이가형(1974), 신상웅(1977), 김재현(1978) 등을 통해 오직 어른용으로만 번역되어 왔다. 그리고 뒤의 각주 5)에 제시된 번역판 목록이 보여주듯이, 다양한 어른용 번역판이 현재까지도 꾸준히 새로 출판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작품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데다, 1990년대에 불어 닥친 이른바 ‘세계고전명작’ 중심의 아동용 문고 출간 바람을 타고 아동용 독자를 겨냥한 작품으로 새로 번역되어 나오게 되면서, 이 작품에 대한 인식은 어른용보다는 아동용이라는 것으로 크게 바뀐다. 물론 이는 19세기 작품으로서 이 소설의 내용이 오늘날 아동 독자층에게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는 작품 자체의 보편적 성격이 크게 작용한 탓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 원래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쓰인 작품이었던 『크리스마스 캐럴』은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독자들에게는 어른을 위한 소설보다는 아동용 이야기로 수용되고 있다.³⁾

물론 원래 어른용으로 창작되었지만 오늘날 아동용 문학으로 번역되어 읽히는 작품은 『크리스마스 캐럴』 말고도 많다. 대개 『크리스마스 캐럴』처럼 19세기 이전에 씌어진 옛 고전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작품들이 그러한데, 대표적인 예로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나 디포우(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는 원작의 길이와 내용 때문에 완역본이 아닌 축약본의 형태로

3) 이런 점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은 원래 아동을 위해 창작되었다가 어른까지 독자층이 확대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The Wind in the Willows*) 같은 작품들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고 하겠다.

만 아동 독자들에게 주어진다. 반면 『크리스마스 캐럴』은 그 작품 분량과 내용이 축약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원전 내용 그대로 번역할 만한 것이어서, 축약본은 물론이고 완역본의 형태로, 그것도 여러 가지 완역본의 형태로 아동독자들에게 제공된다. 이처럼 독자층이 아동용으로 하향 정착되면서도 완역이 되어 출간되는 경우는 아마 『크리스마스 캐럴』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은 아동문학 번역작품으로서 상당히 독특하다면 독특한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⁴⁾

4. 아동용 『크리스마스 캐럴』 우리말 번역본 현황

김영진 옮김 (2003), 비룡소.

김난령 옮김 (2003), 시공주니어.

김윤희 옮김 (2011), 보물창고.

유수경 옮김 (2001), 대일출판사.

장수철 옮김 (1991), 교학사.

한상남 엮음 (2010), 지경사.

이정민 엮음 (2008), 아이세움.

양재홍 엮음 (2005), 효리원.

박청호 엮음 (2008), 어린이작가정신.

지연서 엮음 (2005), 그린북.

김영일 엮음 (2000), 계몽사.

4) 이 독특한 성격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은 바로 번역가의 자율성 실천이 다른 아동문학번역에서보다 상당히 크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원래 어른용으로 쓰인 텍스트를 아동에 맞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가의 개입을 통한 텍스트의 조정과 손질이 원래 아동용으로 쓰인 작품을 번역하는 경우보다 훨씬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중 원작 전체를 완역한 것은 김영진, 김난령, 김윤희의 번역본이다. 나머지는 원작의 내용을 아동용으로 우리말로 개작하거나 축약한, 따라서 ‘번역’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할 만한 것들이다. 길이와 축약 정도, 텍스트 형태 등으로 보아, 이들 ‘문제본’들 가운데서도 유수경, 장수철, 한상남, 이정민, 양재홍의 것(모두 150쪽 이상)은 초등학교 중간 내지는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들로 보이고, 박정호, 지연서, 김영일의 것(모두 60쪽 미만)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들로 판단된다.⁵⁾ 필자가 구체적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가운데 완역본인 김영진, 김난령, 김윤희의 번역본이다.

5. 아동용 『크리스마스 캐럴』 우리말 번역본 분석

김영진, 김난령, 김윤희의 각 번역본을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원문과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하나하나 세밀히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번역본은 아동문학의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문체와 가독성을 상당한 정도로 성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번역본은 기본적으로 원작에 대한 텍스트적 합치성을 어느 정도 충실히 유지하는 한편 아동을 위한 번역으로서 도차어 지향적 번역전략을 자율적으로 구사함으로써 텍스트에 적절한 수준의 ‘손질’과 ‘변형’을 가하고 있다. 각 번역본에서 발견되는 번역가의 이러한 개입과 자율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문학 번역작품에 요구되는 번역의 질과 특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발휘되고 있다. 그 한 예를 들어보자.

“Business!” cried the Ghost, wringing its hands again. “Mankind was ① my business. ②The common welfare was my business; charity, forbearance, and benevolence, were all my business. The dealings of my trade were but a drop of water in the comprehensive ocean ③of my

5) 아동용이 아닌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따라서 완역본인 『크리스마스 캐럴』우리말 번역판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윤혜준 옮김 (2011), 현대문학; 유동환 옮김 (2010), 푸른나무; 박승범 옮김 (2009), 팬덤북스; 이은정 옮김 (2008), 펄컨클래식코리아; 김세미 옮김 (2006), 문예출판사; 박정만 옮김 (1996), 청목; 홍가영 옮김 (1994), 홍신; 강영길 옮김 (1992), 일신서적.

business!”(23)

“사업가라고!” 유령이 다시금 울부짖으며 손을 비틀어 댔다. “내 ①진정한 사업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했네. ②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힘 쓰는 것이 내 사업이어야 했어. 자선, 박애, 용서, 자비, 이런 것들이 내 사업이어야 했다고, 내가 했던 장사는 ③내가 진짜 했어야 할 사업에 비하면 망망대해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았어.”(김영진 49)

그러자 혼령은 다시 두 손을 비틀어 꺾으며 소리쳤다. “사업이라고! 내가 ①해야 할 사업은 모든 인류를 위한 일이었어. ②이웃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었어. 자선과 인정과 관대함과 박애, 이 모든 것이 내가 해야 했던 사업이었어. 내가 한 거래들은 ③내가 해야 했던 일들에 비하자면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했던 것을!”(김난령 47-8)

유령은 또 한 번 손을 힘껏 비틀며 외쳤다. “사업이라고! 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했네. ①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힘쓰는 게 내 사업이었어야 했거늘! 자선, 자비, 인내, 선행, 그 모두가 내가 해야 할 사업이었던 말일세. 내가 했던 거래는 ②원래 했어야 하는 사업에 비하면 넓고 넓은 바다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았다고!”(김윤희 41-2)

작품의 앞부분에서 스크루지(Scrooge) 앞에 나타난 말리(Marley)의 혼령이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후회하며 탄식하는 대목이다.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해 보면, 각 번역문은 전체적으로 원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밑줄 친 ①②③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 독자를 위해 각 번역문은 원문의 무겁고 압축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로 길게 풀어 써 옮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휘와 표현의 추가나 의역 같은 자율적 개입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은 자연스러운 어투의 사용이나 문장 구조의 변화 등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번역문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아동용 『크리스마스 캐럴』 번역본이 지니는 이러한 면모는 성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나온 다른 번역본과 비교해볼 때도 잘 드러난다.

“Ghost of the Future!” he exclaimed, “I fear you more than any Spectre I

have seen. But, as I know your purpose is to do me good, and as I hope to live to be another man from what I was, I am prepared to bear you company, and do it with a thankful heart. Will you not speak to me?"(63)

“미래의 정령님!” 그는 외쳤다. “난 이제껏 본 그 어떤 정령보다도 당신이 더 두렵소, 하지만 ㉠정령님의 목적이 나를 유익하게 해주려는 것임을 아니까, 또한 내가 ㉡지금껏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니까, ㉢덕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고마운 마음에서 따라가겠소. 뭐라고 말을 좀 안 하겠소?”(윤혜준 136-7)

“미래의 유령님! 유령님이야말로 제가 지금까지 보아 온 어떤 다른 유령들보다 두려운 존재이십니다요. 하지만 ㉠저를 이롭게 하기 위해 유령님께서 여기에 오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전의 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고요. ㉢그러니 이 몸, 기꺼이 유령님을 따르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그나저나 저한테 한마디만 해 주시지 않으렵니까? ㉤아무 말이나 좋습디다요.” (김영진 155)

“미래의 유령님! 저는 지금껏 만났던 어느 유령님보다도 당신이 두렵습니다. 허나 저는 ㉠당신의 목적이 저를 선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임을 알고 있고, ㉡저 또한 과거의 모습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몇 말씀만이라도 건네주십시오.”(김난령 150-1)

“미래의 유령님! 저는 지금껏 만난 어떤 유령보다도 당신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도움을 주러 오셨다는 걸 알기에,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령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말씀이든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김윤희 121)

스크루지가 마지막 세 번째 유령의 방문을 받았을 때의 장면이다. 번역문 중 첫 번째 것은 가장 최근에 나온 일반 독자 대상 번역본인 윤혜준의 번역이다. 이 번역문은 원문을 직역에 가깝게 정확히 번역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아동용 번역문들은 쉬운 말로 풀어서 옮기기(㉠), 여러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기(김영진㉢㉣) 원문에 없는 어휘나 문장을 추가하기(㉤), 그리고 문장구조를

간단히 압축하기(김윤희◎) 등의 방식으로 텍스트에 변형을 가하여 가독성을 추구하고 있다.

아동용 『크리스마스 캐럴』 번역본에서 번역가의 자율성에 의해 텍스트에 가해지는 이러한 변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크게 네 가지 범주, 즉 텍스트의 ‘축소’, ‘확장’, ‘단순화’, 그리고 ‘의역’이라는 범주로 나뉠 수 있다. 여기에서 텍스트의 ‘축소’는 원문의 단어나 구를 생략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그리고 원문의 긴 표현을 간단히 압축하여 번역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확장’은 원문에 없는 단어나 구를 번역가가 임의로 첨가하거나 원문의 표현을 길게 풀거나 늘여서 번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단순화’는 원문의 복잡하고 긴 문장을 간단하고 짧은 문장으로 나눠서 변형시키거나 어려운 표현을 쉽고 평이하게 옮기는 것을 뜻하며, ‘의역’은 원문의 구조나 의미를 번역가가 일반적인 정도 이상으로 자유롭게 변형시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창의적인 자국화나 토속화 번역도 포함된다.⁶⁾ 다음은 각각 범주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5.1. 축소

5.1.1. 단어나 구의 생략 또는 누락.

The sky was gloomy, and the shortest streets were choked up with a dingy mist, ㉠half thawed, half frozen, ㉡whose heavier particles descended in a shower of sooty atoms, as if all the chimneys in Great Britain had, ㉢by one consent, caught fire and were blazing away to their dear heart's content. (45)

6) 아동용 『크리스마스 캐럴』 번역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형은 모두, 베누티처럼 텍스트의 이국성을 주장하는 베르만(Antoine Berman)에 따르면, “부정의 분석들”(negative analytic)을 통해 나타나는 12개의 “텍스트 기형화”(textual deformation) 경향에 속하는 것들이다(Berman 1985: 278-89). 하지만 아동문학번역에서의 이런 변형은 ‘비윤리적인’ 기형화가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윤리적’ 변형에 가깝다. 이런 점에서 베누티나 베르만의 번역관은 보편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렸고 가장 짧은 골목길조차 반쯤 얼어붙은 짙은 안개 때 문에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안개는 영국의 모든 골목에서 동시에 재를 뿜어대거나 하는 것처럼 시커맸다. (김영진 107)

원문의 밑줄 친 부분들 가운데 ㉠가 번역문에서 생략되었고, ㉡와㉢의 경우도 번역문은 거의 대부분을 생략한 채 그 비슷한 의미만 최소한으로 간단히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5.1.2. 간결한 압축.

㉠Although well used to ghostly company by this time, Scrooge feared the silent shape so much that his legs trembled ㉡beneath him, and ㉢he found that he could hardly stand ㉣when he prepared to follow it. (63)

이제는 유령과의 동행에 꽤 익숙해진 스크루지였지만 말없는 이 형체가 몹시 두려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막상 유령을 따라가려고 하니 서 있 기조차 힘들었다. (김윤희 121)

㉠와 ㉣의 경우, 부사절로 된 원문의 내용이 번역문에서는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압축된 표현으로 잘 옮겨져 있다. 그리고 ㉡와㉢의 경우는, 물론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밑줄 친 부분이 문맥상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의미의 손상이 거의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간결한 압축 번역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5.2. 확장

5.2.1. 단어나 구의 첨가.

... though the clock pointed to his usual time of day for being there, he saw no likeness of himself among the multitudes that poured in through the Porch. (65)

시계는 자기가 그 구석에 서 있어야 할 시간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스크

루지의 모습은 그곳에 없었다. 눈길을 상품 거래소 입구로 돌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자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영진 161)

Scrooge... beheld a solemn Phantom, draped and hooded, coming, like a mist along the ground, towards him. (62)

모자를 덮어 쓴 유령이 기다란 망토 자락을 질질 끌면서 땅 위에 깔려 있는 안개처럼 스크루지를 향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다. (김난령 147)

첫 번째 인용인 김영진의 경우, 한 문장으로 된 원문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짧게 나눠서 옮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밑줄 친 부분 즉 “눈길을 ~ 입구로 돌렸다.”와 같이 원문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첨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인 김난령의 경우, ‘망토를 두르고 모자를 쓴’이라고 옮길 수 있는 원문 “draped and hooded”에서 “draped” 부분을 “기다란 망토 자락을 질질 끌면서”와 같이 불필요한 말을 임의로 길게 첨가하여 옮기고 있으며, 바로 뒤의 “coming”에 대해서도 임의로 “스멀스멀”이라는 부사어를 첨가하여 옮겼다.

5.2.2. 늘이거나 풀어서 쓰기

Let it also be borne in mind that Scrooge had not bestowed one thought on Marley, since his last mention of his seven-years' dead partner that afternoon. And then let any man explain to me, if he can, how it happened that Scrooge.... (17)

또 하나, 비록 스크루지가 그날 오후 기부금을 걸으러 온 두 신사에게 칠년 전 저 세상으로 간 자기 동업자 얘기를 꺼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제 전 부일 뿐, 그 이후 저녁 시간 내내 다시는 말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말인가! 어찌 된 영문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내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김영진 33)

The Spirit signed to him to listen to the two apprentices, who were

pouring out their hearts in praise of Fezziwig: and when he had done so, said. (36-37)

유령은 두 견습 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손짓했다. 둘은 페치위그 영감을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있었다.
스크루지가 순순히 젊은이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유령은 이렇게 말했다. (김난령 82)

위의 예들은 모두, 비록 원문에 썩어져 있지 않지만 문맥상 그 의미가 이미 명확하게 전제되어 있는 내용을 번역가가 다소 장황하게 늘이거나 풀어서 옮긴 경우이다. 첫 번째 인용 김영진의 경우, “기부금을 걷으러 온 두 신사에게”처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다시 언급하여 끼워 넣거나 장황하게 부연하는 복수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과잉 번역을 하고 있으며, 김난령의 경우 역시 밑줄 친 부분에서 “순순히 젊은이들 이야기에”가 없어도 별 상관이 없는데 공연히 번역문을 길게 늘어놓고 있다.

5.3. 단순화

5.3.1. 짧은 문장으로 나눠 쓰기.

It was strange, too, that while Scrooge remained unaltered in his outward form, the Ghost grew older, clearly older. Scrooge had observed this change, but never spoke of it, until they left a children's Twelfth Night party, when, looking at the Spirit as they stood together in an open place, he noticed that its hair was grey. (61)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었다. 스크루지의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유령은 눈에 띄게 늙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스크루지는 유령의 변화를 눈치 챘으나 아이들의 주현절 잔치를 구경하고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령의 머리는 어느새 백발이 되어 있었다. 그제야 스크루지가 물었다. (김영진 146)

위에서 원문은 복잡하고 긴 문장을 포함한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런데 번역문은 이것을 다섯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함으로써, 아동 독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

5.3.2. 쉬운 말로 고쳐 쓰기.

“If they would rather die... they had better do it, and decrease the surplus population.” (15)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죽는 게 낫지. 쓸데없이 넘쳐나는 인구도 줄일 수 있고 말이요.” (김윤희 22)

위의 원문에서 작가는 “the surplus population”이라는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김윤희 번역본은 이를 ‘잉여’나 ‘과잉’ 같은 한자어로 옮기지 않고 “쓸데없이 넘쳐나는 인구”라고 쉬운 말로 옮김으로써 아동의 눈높이에 번역문의 어휘 수준을 맞추고 있다.

5.4. 의역

5.4.1. 자유의역

He was conscious of being exhausted, and overcome by an irresistible drowsiness; and, further, of being in his own bedroom. He gave the cap a parting squeeze, in which his had relaxed; and had barely time to reel to bed, before he sank into a heavy sleep. (41)

기진맥진한 스크루지에게 졸음이 쏟아졌다. 스크루지는 어느새 자기 침실에 돌아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유령의 고깔모자를 짓누르려고 했던 손이 스르르 풀리면서 그대로 침대에 떨어져 깊은 잠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김영진 98)

Then she began to drag him, in her childish eagerness, towards the door; and he, nothing loth to go, accompanied her. (33)

그런 다음 어리광을 부리듯 소년을 문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소년도 가까이 소녀를 따라갔다. (김윤희 59)

그러더니 여자 아이는 떼쟁이처럼 소년을 잡아 끌고 문 쪽으로 갔다. 소년은 그 손에 이끌려서, 너무도 기쁜 얼굴로, 여자 아이를 따라갔다. (김난령 73)

첫 번째 김영진의 경우, 원문의 문장 구조와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는 대신, 밑줄 친 부분들을 과감히 생략하고 문장을 나누고 내용을 압축하는 등, 번역가가 재량껏 자유로운 손질과 조작을 가하며 번역했다.⁷⁾ 하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원문의 의미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편 두 번째 예에서는, 밑줄 친 원문 표현 “in her childish eagerness”에 대해 김윤희와 김난령은 전후 문맥상 ‘어린애다운 진지한 태도로’라고 옮기는 게 정확한 원문의 의미를 약간 자유롭게 해석하여 각각 “어리광을 부리듯”과 “떼쟁이처럼”이라고 옮겨놓았다.

5.4.2. 자국화 또는 토속화

“Whose else’s do you think?” (68)

“척하면 삼천리지 누구 거겠어요?” (김영진 167)

“Here’s Martha, mother;” cried the two young Cratchits. “Hurrah! There’s such a goose, Martha!” (48)

“신난다! 거위가 정말 끝내줘, 마사 누나!” (김윤희 92)

첫 번째 김영진의 경우 ‘그 사람 말고 누구 거겠어요?’라는 뜻의 원문을 토속적인 관용어인 ‘척하면 삼천리지’라는 말을 사용하여 좀더 친근감 있고 수사

7)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축소’와 ‘단순화’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필자가 이것을 ‘자유의역’으로 분류한 것은 ‘축소’와 ‘단순화’가 함께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번역문의 문장 구조와 내용 전개가 원문과는 전혀 다르게 자유로이 조작되고 재편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적 효과가 강한 문장으로 번역했다. 두 번째 김윤희의 경우도, ‘우리가 먹게 될 거위는 정말로 훌륭하다’는 의미의 원문을 “거위가 정말 끝내줘”라는 간결한 속어적 표현을 사용해 높은 수준의 등가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5.5. 분석 결과 종합

이상 예를 통해 살펴본 네 가지 범주의 변형은 세 번역본 모두에게서 골고루 발견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번역본은 그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나름대로 일정한 특징을 띤다. 김영진 번역은 네 가지 방식이 모두 골고루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횟수도 다른 번역본에 비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축소의 정도가 제일 심하다. 김난령 번역은 텍스트의 축소와 단순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확장, 그 중에서도 늘어쓰기를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자율성을 발휘한다. 그리고 김윤희의 번역은 축소와 의역과 단순화가 비교적 중간 빈도로 발생하는 한편 확장이 다른 번역본에 비해 아주 두드러질 만큼 낮게 일어난다.

이러한 차이를 통계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비교와 대조를 위해 일반성인 독자층이 대상인 윤혜준 번역본에 대한 수치도 포함시킨다.

	축소		확장		단순화		의역	
	생략 (누락)	압축	첨가	늘여 쓰기	나뉘 쓰기	쉽게 쓰기	자유 의역	자국화 (토속화)
김영진	240	167	128	94	147	50	304	9
	407		222		197		313	
김난령	61	40	78	163	48	14	114	0
	101		241		62		114	
김윤희	48	82	19	17	62	26	125	3
	130		36		88		128	
윤혜준	43	20	11	7	8	0	61	6
	63		18		8		67	

위의 통계표는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아동용 『크리스마스 캐럴』번역본에서 텍스트의 축소, 확장, 단순화, 의역 등의 형식을 통한 번역가의 개입과 원천 텍스트 변환이 어른용 번역본에 비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번역가의 이러한 적극적 개입과 과감한 텍스트 변환은 곧 아동용 『크리스마스 캐럴』 우리말 번역에서 번역가의 자율성이 상당히 높게 실천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아동문학번역의 목적을 위한 도착 텍스트 지향 번역전략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세 번역본 모두 ‘가독성’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고려할 때, 이 세 번역본은 모두 ‘기능적 등가’를 충분히 달성한 ‘용인될 만한’ 번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 번역본 모두 생략과 단순화 정도가 윤희준 번역에 비해 상당히 두드러진다는 점, 특히 김영진의 번역본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점은, ‘정확성’과 관련된 번역본의 품질 평가에서는 좀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6. 결어

자율성이라는 말은 자유와 규율을 포괄하는 말이다. 아동문학번역이 자율성을 지닌다고 할 때, 그것은 아동문학이라는 특수한 목적과 기능을 위해 번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원문에 대한 과감한 변환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일정한 ‘규율’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라는 특수한 독자층을 위해 ‘가독성’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아동문학번역의 성격상, 이 규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도착어 언어체계와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텍스트의 내적 적합성 규율일 것이다.

하지만 아동문학번역은 어디까지나 문학번역의 한 갈래이다. 따라서 아동문학번역은 문학번역이 지니는 원문 지향적 성격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무리 아동용을 위한 번역이라는 특수한 ‘스코포스’(skopos)를 충실히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도착어 텍스트의 내적 적합성을 우선시하여 번역가가 자율성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아동문학번역은 문학번역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원문과 출발어에 대한 충실성을 ‘번역물’로서 용인될 수 있는 만큼은 최소한 갖춰야 한다. 스코포스의 이론으로 원문 텍스트의 지위를 “퇴위”(dethroning)시켰다고 일컬어지는 라이스(Katharina Reiss)와 페르미어(Hans J. Vermeer)도 도착어 텍스트가 갖는 원작과의 “텍스트 간 합치성”(intertextual coherence)을 번역 기본규칙의 하나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Munday 2001: 106-108).

다시 말하자면 아동문학번역에서 번역가의 자유는, 비록 일반 문학 번역의 경우보다 훨씬 넓은 편이지만, 여전히 두 가지 기본 규율, 즉 원작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합치성을 지녀야 한다는 규율과 도착어의 언어체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율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만약 번역가의 자유가 이러한 규율의 통제를 벗어나 과도하게 나갈 때, 번역가의 개입은 파괴가, 손질은 손상이, 변환은 변질이, 그리고 마침내 번역은 번역이 아닌 ‘번작(翻作)’ 또는 ‘변작(變作)’이 된다.

문제는 이 두 규율 중 첫 번째 규율, 즉 원작에 대한 합치성 규율의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물론 생략이나 누락, 첨가 그리고 오역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각 번역본의 규율 이행 정도가 어떤지는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한 또는 바람직한 번역의 객관적 기준인가 하는 것은 확실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대적인 문제다. 앞에서 살펴본 『크리스마스 캐럴』 우리말 번역본의 경우, 세 번역본 모두 축소나 확장, 의역 등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세 번역본 모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보인다고 할 수도 있고, 김영진의 경우는 적정수준을 아무래도 좀 넘어선 이른바 ‘아름다우나 부정(不貞)한 여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결국 평가자 개인의 번역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필자는 김영진의 번역본 역시, 비록 일반 문학번역으로는 좀 지나친 감이 있지만, 아동문학 번역으로는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본다. 다만 이렇게 ‘관대하게(?)’ 허용기준을 넓혀주다 보면, 그야말로 ‘자유번역’의 경우까지도 인정해줘야 하는, 그리하여 “번역독자에 맞게 한다는 의도로 원작품을 훼손하는 일”(손지봉 2007: 41)까지, 혹은 이보다 더 나아가 앞에서 언급한 ‘문제본’들처럼 번역이라기보다는 ‘번작’이나 ‘변작’에 해당되는 것들까지도 용인해줘야 하는 난감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본’ 문제는 아동문학번역에 대한 논의에서 따로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참고문헌

- 성승은 (2010) 『영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지봉 (2007) 「번역과 문화」, 『문학번역의 이해』, 한국문학번역원, 서울: 북스톰리: 27-59.
- 신지선 (2005) 『아동문학 영한번역의 ‘규범’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9) 「이중 독자층이 내재한 아동문학의 번역양상 고찰—『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0(3): 141-159.
- 안미라 (2009) 「대상 독자층에 따른 번역전략의 차이--그림형제 동화 번역 비교 분석」, 『통번역학연구』 13(1): 107-125.
- 이형진 옮김 (2009) 『문학번역의 세계』, 서울: 한국문화사 (Landers, Clifford E. *Literary Translation - A Practical Guide*, 2001 Cleavedon: Multilingual Matters).
- 이희재 (2009) 『번역의 탄생』, 서울: 교양인.
- 임호경 옮김 (2006) 『번역의 윤리』, 서울: 열린책들(Lawrence Venuti, *The Scandals of Translation*, 1998. New York: Routledge).
- 정혜용 (2012) 『번역논쟁』, 서울: 열린책들.
- 정연일, 남원준 옮김 (2006) 『번역학 입문—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Jeremy Munday.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 Theories and Applications*. 2001.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조의연 (2011) 「번역전략과 번역의 정체성」, 『2011년 한국번역학회 가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6.
- Bassnett-McGuire, Susan (1980)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Methuen.
- Berman, Antoine (1985/2004) “Translation and the Trials of the Foreign”, translated by Lawrence Venuti in Lawrence Venuti (ed.) (2004), 276-89.
- Landers, Clifford E. (2001) *Literary Translation - A Practical Guide*, Cleavedon: Multilingual Matters.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Reiss, Katharina (1981/2004) “Text, Kind and Individuality of Text: Decision Making in Translation”, translated by Susan Kitron in Lawrence Venuti (ed.) (2004), 168-179.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s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_____ (ed) (2004)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2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분석대상 텍스트>

Dickens, Charles (1843/1980) *A Christmas Carol and the Chimes*, New York: Everyman's Library.

김영진 옮김 (2003), 『크리스마스 캐럴』, 서울: 비룡소.

김난령 옮김 (2003), 『크리스마스 캐럴』, 서울: 시공주니어.

김윤희 옮김 (2011), 『크리스마스 캐럴』, 서울: 보물창고.

[Abstract]

**‘Autonomy’ in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 Focusing on Korean
Translations of Dickens’s *A Christmas Carol***

Lee, Inkyu
(Kookmin University)

Refuting Venuti’s definition of the autonomy of translation as “the textual features and operations or strategies that distinguish it”(Venuti 2004: 5) from the non-translational texts, this paper finds the autonomy of translation in the essential condition of translational action itself: the vast textual possibility for a translation of a source text. Based on this position, this paper examines how much autonomy a translator can exercise in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focusing on three Korean translations of Charles Dickens’s *A Christmas Carol*.

The close examination of the three Korean translations of *A Christmas Carol* shows that translators’ autonomous textual intervention happens in many different ways. These textual transformations are classified under four main categories: reduction, expansion, simplification, and manipulation. Reduction includes omissions and condensation, while expansion consists of additions and over-translation. And simplification comprises sentence-breaking and paraphrasing, while manipulation implies bold transformations by free interpretation or creative domestication.

The three Korean translations of *A Christmas Carol*, compared with the most recent translation for adult readers, turn out to contain a very wide range of translational autonomy. Especially, one of them carries out this freedom far more actively and expansively than the others, to the extent of becoming so-called ‘an unfaithful beauty.’

▶ Key Words: autonomy of translation, *A Christmas Carol*, textual transformation, reduction, expansion, simplification, manipulation

이인규

국민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iklee@kookmin.ac.kr

관심분야: 소설번역, 번역비평, 번역이론

논문투고일: 2012년 4월 27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9일